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28 주차 (롬 10:5-10:18)

(2016년 3월 11일 - 2018년 3월 17일)

(제5권 28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28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3 월 1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주일)

### 오늘의 본문 (롬 10:5)

<sup>5</sup> Μωϋσῆς γὰρ γράφει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τὴν ἐκ [τοῦ] νόμου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ὅτι ὁ ποιήσας αὐτὰ ἄνθρωπος ζήσεται ἐν αὐτοῖς.  
(율법에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율법의 의]로 살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참으로 끈질기게 설명하고 있다. 이만큼 반복했으면 이제는 그만해도 될 법한데 그는 또 다시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율법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의로 인해 살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3 장에서 율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떠나 다른 의를 보여주셨다고 선언했다.

“<sup>19</sup>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sup>20</sup>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sup>21</sup>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sup>22</sup>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19-22).

행위로 율법의 의를 쟁취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야 한다. 하지만 바울은 일찌기 율법의 역할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설교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율법은 묘한 힘이 있어서 인간들이 율법 조문을 보는 순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의의 목표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유대인들이 바보라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율법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강력한 닷에 걸려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바로 율법의 저주다. 일찌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sup>10</sup>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sup>11</sup>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sup>12</sup>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갈 3:10-12).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뜻이다.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온갖 규례를 만들어 지키고, 음식도 율법에 정한 대로 가려서 먹고, 절기 때마다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등 율법의 요구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켜내려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받은 상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 나사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부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녀를 끌고 왔던 경건해 보이는 유대주의자들이 오히려 저

주받은 인생이다. 세리가 축복받은 자고 도리어 바리새인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율법이 자신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찾게 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율법이 자신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고 자신을 빛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인간이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럴 듯하게 꾸미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기독교에서 인간의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율법 만한 것도 없다.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겉모습을 거룩하게 꾸밀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walk)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sup>6</sup>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sup>17</sup>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sup>18</sup>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골 2:16-18).

사실 모든 한국인들은 이방인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율법과는 무관한 자들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속해서 그런지 도덕주의라는 새로운 율법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의의 잣대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율법과는 무관하다면 서도 사실은 ‘토종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형국이다. 한국적 토종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 자신은 이미 사회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금전 만능주의, 성공주의를 좇으며 그것을 장려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성공 모델로까지 치켜 세우기도 한다. 그뿐 아니다. ‘토종 율법’을 일반 성도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정작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결국 ‘토종 율법’의 짐은 고스란히 힘 없는 일반 성도들이 지고 가야 한다. 일찌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하신 바 있다.

“<sup>2</sup>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sup>3</sup>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sup>4</sup>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sup>5</sup>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sup>6</sup>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sup>7</sup>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마 23:2-7).

율법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겉모습을 꾸미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과 거룩을 평가하도록 한다. 하지만 율법으로 자신을 꾸미면 꾸밀수록 하나님의 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은 삶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지 말라 (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0:5)

- <sup>5</sup> Μωϋσῆς γὰρ γράφει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τὴν ἐκ [τοῦ] νόμου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ὅτι ὁ ποιήσας αὐτὰ ἄνθρωπος ζήσεται ἐν αὐτοῖς.  
(율법에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율법의 의]로 살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자기의 열심을 통해 의를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이는 행위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 비단 율법주의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도덕주의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한 사회가 오랜 시간을 통해 지켜온 도덕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사회의 한 일원이기에 그 사회가 지향하는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윤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보다 더 윤리 의식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공동체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일에 대해 자동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행위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전혀 별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식의 용서가 아니다. 사회의 규범과 법을 어기는 죄는 이 세상의 법과 도덕 기준을 벗어난 행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에 의해 정죄받고 처벌받는다. 설령,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도덕을 어긴 경우 하나님이 그 일을 용서하고 없애주시지는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사회의 법과 규범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보상을 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선한 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거나 부모를 일찍 여윈 고아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봉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다. 사회 곳곳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도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이런 작은 선한 행위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이 사회가 유지되고 지탱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기독교인이기 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도 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하고 겸손을 가장하여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데 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불교도들이 노숙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는 따뜻한 한 끼 식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말은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늘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열심을 내려 놓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욥이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고난 중에 한 행동을 보자. 욥은 자신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냐며 하나님께 항변했다. 그때 욥을 찾아 온 친구들은 하나님이 절대 죄없는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욥이 뭔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하니 그 죄를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쳤다. 이후로 욥을 고발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방어하는 욥 사이에 지리한 공방이 오갔는데 이를 마무리지은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다.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과 이에 항변하는 욥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4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5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의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6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욥 35:4-8).

인간들은 모든 행위를 하나님과 연결지으려 한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 내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하늘의 성소에 제물로 드리진 예수님의 피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또한 정반대로 자신의 행위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배교를 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교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 포기하는 행위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 6:3-8).

6절에서 말하는 타락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배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타락한 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다시 자신의 행위로 돌아간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위로 만들 수 있다. 은혜가 아닌 행위에 매달리면 그렇게 된다. 유대인이 그랬다. 오늘날 교회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마음에 믿으면 구원된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0:6~8)

- <sup>6</sup> ἡ δὲ ἐκ πίστεως δικαιοσύνη οὕτως λέγει·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μη εὐτις ἐν τῇ καρδίᾳ σου· (너희 마음에 말하지 말라)  
τίς ἀναβήσεται εἰς τὸν οὐρανόν;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τοῦτ' ἔστιν Χριστὸν καταγαγεῖν·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 <sup>7</sup> ἦ· (또는)  
τίς καταβήσεται εἰς τὴν ἄβυσσον;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느냐?)  
τοῦτ' ἔστιν Χριστὸν ἐκ νεκρῶν ἀναγαγεῖν·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 <sup>8</sup> ἀλλὰ τί λέγει;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  
ἐγγύς σου τὸ ῥῆμά· ἔστιν (말씀이 너희 가까이에 있다)  
ἐν τῷ στόματί σου (너의 입에 있다)  
καὶ ἐν τῇ καρδίᾳ σου,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다)  
τοῦτ' ἔστιν τὸ ῥῆμα τῆς πίστεως ὃ κηρύσσομεν·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바울이 내세운 구절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말씀이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다. 신명기의 뜻은 앞서 선포한 율법과 다른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두 번째로 선포한 율법이라는 뜻이다.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다. 그로부터 2년 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한 부정적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십 년동안 광야에 가두어 놓으셨다.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스무 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모든 어른들이 모조리 다 죽은 셈이다. 그 후에 모세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서 나왔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율법을 재차 설명한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율법은 5 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신 5:1)라는 말로 시작하여 30 장에서야 율법 선포를 마무리한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은 신명이 30 장에 나오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모세는 율법 선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sup>11</sup>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sup>12</sup>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것이 아니요 <sup>13</sup>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것도 아니라 <sup>14</sup>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 30:11-14).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로 그의 긴 설교를 마무리한다. 다시 말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모세가 한 설교의 마지막 당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은 이처럼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앞의 모든 율법 내용뿐 아니라 복과 저주 부분

은 생략하고 신명기 30 장 11 절~14 절 말씀만 인용했다. 그것도 ‘명령’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의도적으로 바꾸었다. 당시 바울의 이 편지를 읽던 유대인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명령’이란 말을 ‘그리스도’로 대체한 것도 그렇지만 복과 저주 부분을 완전히 생략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라면 누가 보아도 말씀을 왜곡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왜곡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명령이란 말을 그리스도로 대체함으로써 예수님을 율법화하는 묘수를 두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말씀으로 번역함)라 하고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했듯이 말이다.

마태복음 5 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신약의 율법에 해당한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응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선포하신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보듯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등성이까지 따라 올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sup>47</sup>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sup>18</sup>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sup>19</sup>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sup>20</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17-20).

이 말씀 이후에 소위 ‘옛 사람에게 말한 바’로 시작되는 모세 율법을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바꾸셨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세는 대언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언자가 아니라 율법의 주체시며 선포자다. 예수님이 명령의 주체가 되신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명령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명령보다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언뜻 보아도 예수님 말씀을 인간들이 지켜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는 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선포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저주를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받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행하려 한다면 그리스도로 대체된 그것을 다시 명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가 없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0:9~10)

- <sup>9</sup> ὅτι ἐὰν ὁμολογήσῃς ἐν τῷ στόματί σου κύριον Ἰησοῦν (만일 네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καὶ πιστεύσῃς ἐν τῇ καρδίᾳ σου (네가 너의 마음에 믿으면)  
ὅτι ὁ θεὸς αὐτὸν ἤγειρεν ἐκ νεκρῶν,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σωθήσῃ· (네가 구원될 것이다)
- <sup>10</sup> καρδιά γὰρ πιστεύεται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왜냐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στόματι δὲ ὁμολογεῖται εἰς σωτηρίαν.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득은 계속된다. 9장~11장은 유대인들이 주요 독자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은 다르며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상 자기들은 당연히 약속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는 방법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믿어왔다. 이방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도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이 제자들 입에서 나오면서부터 유대교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추종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 정도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만든 유대인들조차 이런 상황에 당황해 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급기야는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리게 된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 누가는 그의 두 번째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sup>2</sup>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sup>3</sup> 저희가 교회의 전승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sup>4</sup>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sup>5</sup>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행 15:1-5).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부여한 셈이 된다.(할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4장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 점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일관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

해 절대로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조문대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건 잘못된 거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이야말로 당연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재차 구원의 방법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일이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주라는 말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나고 말하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은 그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할 수 있는 엄청난 말이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이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인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었다. 모세 율법을 철저히 믿는 그들에게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일은 자칫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요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바울은 일찌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라고 선언했다. 결국 마음에 믿으라는 말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라는 뜻이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또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런 바울의 설명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로 드리는 희생 제사뿐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희생 제사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말인데 그게 어디 생각처럼 쉽겠는가? 특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다면 더더욱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고,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주가 희생 제물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 목회를 하다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실수나 실패를 하기 마련이고 어떤 경우엔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뜻하지 않게 배우자와 이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한다. 이런 과거의 일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 꽁꽁 묶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단어만 들려도 마음이 덜컥 내려 앉을 때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해방을 얻었다는 복음은 그저 지식에 불과할 뿐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는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분들은 단지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아직 진정한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가? 마음 깊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을 놓고 각자가 정말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 구원을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 수치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0:11~13)

- <sup>11</sup> λέγει γὰρ ἡ γραφή· (성경에 말하기를)  
πῶς ὁ πιστεύων ἐπ' αὐτῷ οὐ κατασχυνθήσεται.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sup>12</sup> οὐ γὰρ ἔστιν διαστολή Ἰουδαίου τε καὶ Ἑλλήνου,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ὁ γὰρ αὐτὸς κύριος πάντων,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주이시다)  
πλουτῶν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ἐπικαλουμένους αὐτόν·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 <sup>13</sup> πῶς γὰρ ὅς ἂν ἐπικαλέσῃται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σωθήσεται.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될 것이다.)

###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기독교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바울도 그랬다. 인간의 의지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인해 인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을 속죄라 한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다시 살어나는 경험을 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광까지 얻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까지 내 놓으셨는데 정작 구원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인간들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구원은 매우 실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지 십자가에 대한 지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돼 있다.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 단계는 그것을 삶에서 누리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불안해 하며 죄의식에 쫓겨 살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선한 행위에 기대어 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구원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 최초로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아담과 하와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에 관한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수치심이다. 그들은 수치심으로 인해 자기들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바꿨고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기까지 했다. 창세기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sup>7</sup>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sup>8</sup>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Gen. 3:7-8).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선악 판단을 어쭙잡게 가져왔다. 놀랍게도 그들의 첫 선악 판단의 대상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별거벗고 살았지만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별거벗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따를 만들어 허리춤에 둘렀다. 바로 수치심 때문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것일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나하스(뱀)일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 스스로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명백하다. 하나님도 뱀도 아닌 그들 스

스로 하나님의 권한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운 상태로 판단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선악 판단 기준을 가졌을 뿐인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두려워 그분의 기척만 듣고도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자 아담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

벗은 몸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렸다.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려웠다. 그날 처음 느낀 수치심과 두려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이 느끼는 핵심적인 감정이 되었다.

구원은 반드시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다. 각자의 삶 속에서 구원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지금도 여전히 수치심을 안고 살아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낱 이론에 불과할 뿐 여전히 남들과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고 주저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미리 예단하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자신들을 발견한다. 소위 일류 대학을 못 가서 창피하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어서 창피하다. 특히 한국인들은 거주지가 어디가에 따라 사는 동네마저 창피한 경우도 있다. 그 뿐인가? 타고 다니는 차, 들고 다니는 핸드백, 각종 악세서리들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처럼 삶의 구석 구석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악 판단 기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언제부턴가 교회도 자신의 추하고 연약함을 드러내어 치유받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는 곳으로 변했다.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곳이 아니라 모든 가십거리의 진원지가 된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신의 문제나 죄를 드러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도마에 오르기 십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외적인 것을 치장하기 마련이고 그러고 나면 당연히 그걸 자랑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율법주의에 다름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수치를 가져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선악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도로 반납했기 때문이다. 그게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거나 불가피하게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문제는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아직도 그런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가리는 데 급급한다면 그는 아직도 지식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 스스로 수치스러운 길을 택하셨다.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 높이 달리셨다. 그가 실제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수치에서 해방된다. 그것이 진리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나요?

##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0:11~13)

- <sup>11</sup> λέγει γὰρ ἡ γραφή· (성경에 말하기를)  
πῶς ὁ πιστεύων ἐπ' αὐτῷ οὐ κατασχυνθήσεται.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sup>12</sup> οὐ γὰρ ἐστὶν διαστολή· Ἰουδαίου τε καὶ Ἑλλήνου,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ὁ γὰρ αὐτὸς κύριος πάντων,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주이시다)  
πλουτῶν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ἐπικαλουμένους αὐτόν·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 <sup>13</sup> πῶς γὰρ ὅς ἂν ἐπικαλέσῃται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σωθήσεται.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될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유대인들에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 수치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방인들은 죄로 인한 수치를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수치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달리 구원의 시험대에 다시 섰다. 그들은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선택을 거친 후에 태어난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택 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민족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셨다. 아브라함의 선택 과정,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는 과정, 이삭이 모리아 산에 드러지는 과정, 이삭의 혼인 과정, 야곱이 열두 지파를 이루는 과정,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과정, 그런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가나안에서의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보여주셨다. 결국 그들이 선택된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고 이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룬 셈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였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들이 지켰던 성전의 희생 제사가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그 제사의 실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히브리서 9장 1절~12절을 읽어보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중략)...<sup>8</sup>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sup>9</sup>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sup>10</sup>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sup>11</sup>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sup>12</sup>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히 9:1-12).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바뀌고, 희생 제물이 짐승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통해 속

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대로 그림자를 실체로 알고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제사법이 바뀌었으니 기존의 희생 제사를 그치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려는 외침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유대교를 충실히 믿은 사람들 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되어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인가? 행여라도 그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들처럼 되는 건 아닐까?

“<sup>41</sup>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sup>42</sup>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sup>43</sup>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sup>44</sup>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마 25:41-44).

염소들은 열심히 봉사를 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쌓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 열심이었다는 것이다. 율법은 지켰으나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알지 못했으며 문자주의에 빠져 그것을 행하는 것만으로 모든 걸 다 이룬 줄 알았다. 그런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세상에서 타인들 앞에서 당하는 수치는 일시적인 것이고 견딜 만하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면서, 또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안 됐다 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면 그 수치심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또는 교회 일을 성실히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며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다 따랐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자라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수치심을 없애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수치심을 없애 줄 수 있습니까?

##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다(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0:16~18)

- <sup>14</sup> Πῶς οὖν ἐπικαλέσονται εἰς ὃν οὐκ ἐπίστευσαν,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르겠는가?)  
πῶς δὲ πιστεύσωσιν οὐ οὐκ ἤκουσαν, (그리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πῶς δὲ ἀκούσωσιν χωρὶς κηρύσσοντος,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 어떻게 들겠는가?)  
<sup>15</sup> πῶς δὲ κηρύξωσιν ἐὰν μὴ ἀποσταλῶσιν, (그리고 만약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는가?)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바)  
ὡς ὠραῖοι οἱ πόδες τῶν εὐαγγελιζομένων [τὰ] ἀγαθὰ.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불러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율법에 근거한 행위를 내려 놓고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사실 초대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이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열두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성도들에게 임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힐까봐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해 힘쓰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왔다. 그들 중에 가장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을 꼽으려면 단연 베드로다. 예수님이 잡혀서 심문 받으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에게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던 자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했다. 그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삼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추정컨대 그들 모두는 유대인이었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는 거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유대인 중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 마침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십 세 된 남자를 보게 된다. 그는 앓은뱅이인데다 구걸로 연명하던 거지였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그를 베드로가 말 씀으로 단번에 고쳐주었다. 태어나서 단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회복되어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순식간에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와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쌌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한다. 베드로의 설교 일부를 들어보자.

“<sup>12</sup> ...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sup>13</sup>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 <sup>14</sup>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 <sup>15</sup>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sup>16</sup>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sup>17</sup>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 ... <sup>18</sup>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sup>19</sup>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2-19).

이것이 복음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기에 예수님을 죽였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은 목적하신 대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고함쳤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

의 부활을 부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들은 당일에 오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루를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다음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 익히 알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을 심문하여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준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물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지체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sup>10</sup>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sup>11</sup>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sup>12</sup>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9-12).

성령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당대 유대교의 최고위층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분명히 선포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그곳에 모였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복음을 들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다(행 4:18참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고 말하며 사실상 그들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거침없이 전해진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 정도로 여길 뿐이다. 오늘날도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직분을 받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 목상을 위한 질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신은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왜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